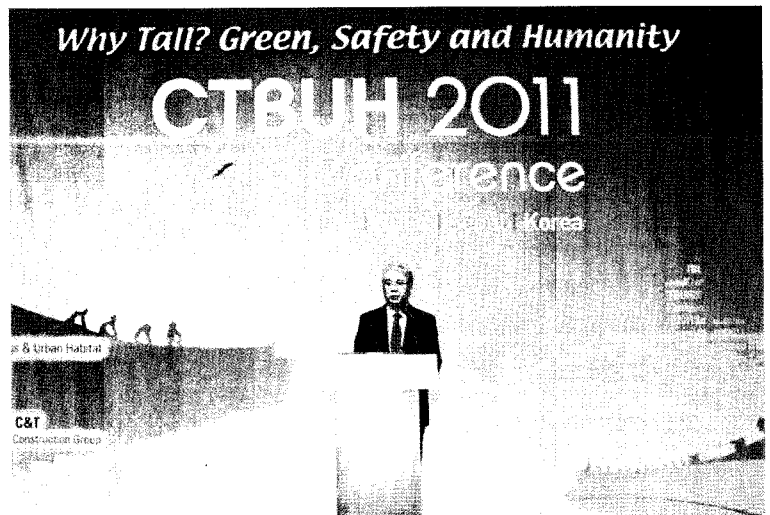


CTBUH 2011 World Conference 소개



정 광 평 부회장
(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세계초고층도시학회(CTBUH)는 지난 10월 2011 CTBUH World Conference 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일~12일에 걸쳐 3일간 열었으며, 이번에 개최된 Seoul Conference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를 “Why Tall? - Green, Safety, & Humanity”로 정하였으며, 초고층 건물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환경(Green), 안전(Safety), 그리고 인간성(Humanity)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일정과 내용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CTBUH 회장 김상대 교수의 연설

<개요>

- 대회명 : 2011 CTBUH World Conference
- 일시 : 10월 10일(월)~12일(수)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Grand Ballroom
- 테마 : “Why Tall? Green, Safety & Humanity”

세계초고층도시학회(CTBUH)는 초고층 건물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에 관련된 전 세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기술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 10월 2011 CTBUH World Conference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일~12일에 걸쳐 3일간 열렸었다.

이번에 개최된Seoul Conference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환경(Green), 안전(Safety), 그리고 인간성(Humanity)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주최측에서는 학술대회의 주제를 “Why Tall? - Green, Safety, & Humanity”로 정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구촌에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많은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층건물



건설시장에도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점과 도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Conference를 통해 참여 회사와 회원들은 서로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3일에 걸친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천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높이의 경쟁>, <한국의 초고층>, <새로운 도전>, <Compact City>, <순차분양 사례>, <초고속 엘리베이터,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Green Building>, <초고층 건물과 신재생 에너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Fire Safety>, <미래의 고성능재료>, <연쇄붕괴>, <초고층건물의 수평, 수직 진동>, <Glass Castle>, <Health Monitoring>, <건축문화유산 창조> 등의 다양한 학술적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DAY1 >

컨퍼런스 첫날인 10일, Plenary Session에서는 버즈칼리파와 최근 사우디 킹덤 타워를 설계한 Adrian Smith(Adrian Smith + Gordon Gill Architecture)가 <The Evolution of an Idea>를 주제로 20세기 초반의 초고층건물의 디자인에서 다음세대의 초고층건물의 디자인을 이야기하였다. 다음으로 Ahmad Abdelrazaq 삼성건설 부사장은 <Paradigm Shift in Tall Building Typology with Considerations to Design & Construction Technologies : New Generation of Tall Buildings>를 통해 버즈칼리파, 인천151타워 등의 구조설계와 시공계획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일본건축학회 회장인 Akira Wada는 <Tall Buildings in Earthquake Prone Country>를 발표하며 일본내의 초고층건물의 역사와 지난 동일본지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첫날 마지막 Plenary Session 발표자인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싱가포르의 Marina Bay Sands Hotel 사례를 통해 <Construction CEO's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of Raffles City Complex and Marina Bay Sands Hotel in Singapore>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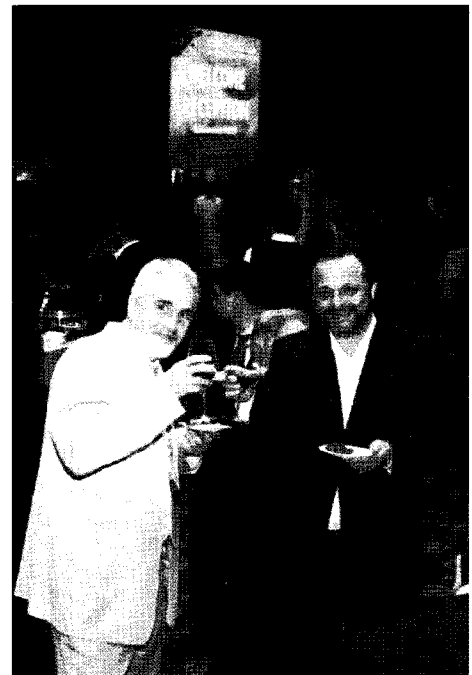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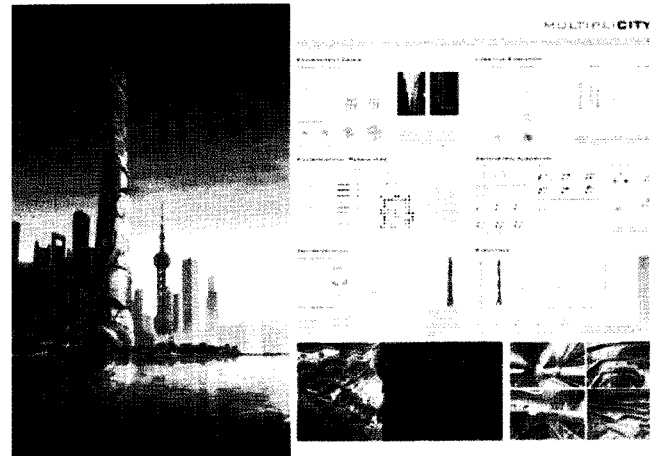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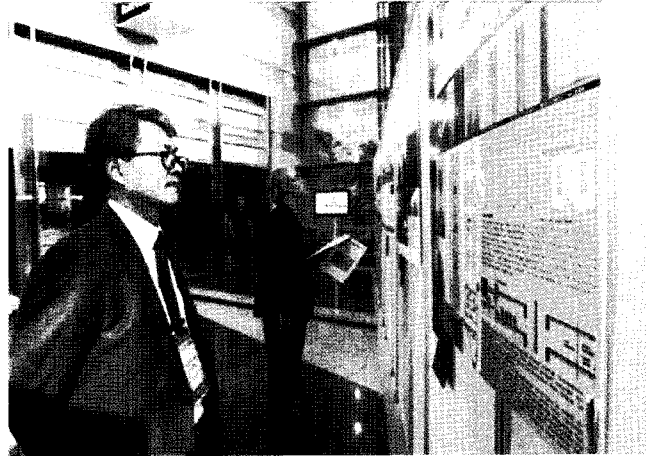


삼성건설 Ahmad 부사장 발표



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 발표

이날 Plenary session이 끝나고 오전엔 BIM, Green Tall Building Technology, Smart Vertical Transportation, High performance Material, Phased Development에 관한 주제로 5개의 트랙에서 각각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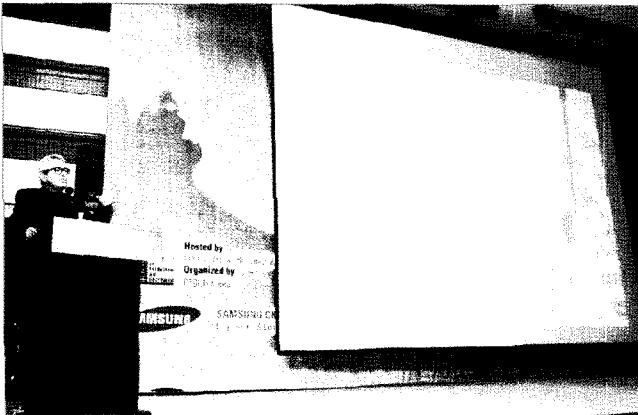


국제학생디자인공모전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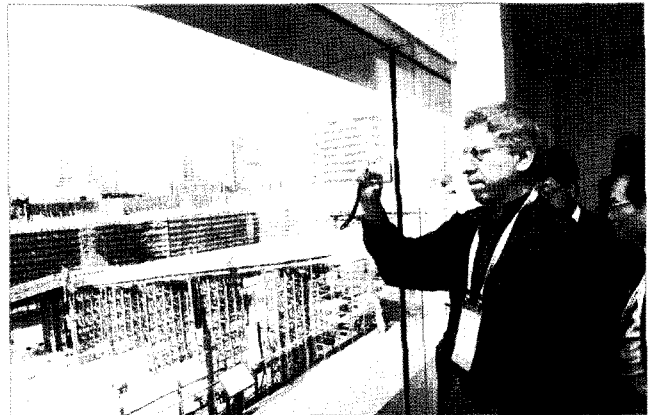
한편 코엑스 Grand Ballroom 각 업체들의 전시부스 옆에는 이번 컨퍼런스부터 개최된 <제1회 CTBUH 국제 학생 디자인 공모전>의 심사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1등 수상은 거주, 상업 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이 수직배치가 아닌 유기적으로 꼬여져 있는 3개의 코어를 따라 배치되어있는 MULTIPLICITY가 수상하였다.

〈DAY2〉

이날은 오후의 Technical Tour 일정으로 인해 오전 세션만 진행되었으며, Plenary Session으로 Daniel Libeskind(Studio Daniel Libeskind), David M.Scott(Arup, NYC), 김종성명예회장(SAC International)이 발표하였다. Daniel Libeskind는 <Counterpoint>라는 주제로 그의 프로젝트를 통해 초고층건물이 강세인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물에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David M.Scott사장은 각 나라의 초고층건물의 구조설계의 접근 방법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A World Apart: Diverging Paths in Tall Building Design and Safety>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 Plenary Session은 김종성 SAC International 명예회장이 발표하였다. 김종성 명예회장은 <Before Tall Building, Beyond Urban Habitat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Korea and its Prospect>를 통해 한국 이시대 건축의 발전상과 소개를 이야기하였다.



건축가 Daniel Libeskind의 Keynote Speech



롯데 잠실타워 현장 방문

첫날과 마찬가지로 5개의 트랙에서는 Innovation & Future, Urban Development : Case Studies, Lotte World Tower, Fire Safety를 주제로 20여편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오후 Technical Tour 일정은 6개의 코스(잠실 롯데타워, 여의도 IFC, Center One, 북촌 한옥마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SK Eco Lab, 현대아산타워 엘리베이터 실험타워) 짜여있었다.

〈Day3〉

컨퍼런스 마지막날 Plenary Session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세명의 Keynote Speaker가 발표하였다. 롯데 잠실타워와 현대 성수동 프로젝트를 맡은 미국 KPF사의 William Pedersen회장은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all Buildings>를 발표하며 현대도시 안에서의 초고층건물의 사회적인 참여를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Speaker인 Enfang Liu대표(상해건축설계연구원)은 <The Core Urban Design Strategies of Tall Building - Low Carbon Community>를 발표하며 도시설계의 방향에서 저탄소 그리고 초고층건물 사이



KPF의 William Pedersen회장의 Keynote Speech

의 관계를 해석하고 나아가 통합된 설계컨셉트, 5-core 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마지막 Plenary Session 발표자인 Dennis CK Poon(Thornton Tomasetti)는 2014년 중국 신천에 완성예정인 Ping An IFC 사례를 통해<The Challenges for Super Tall Building Structural Design and Sustainability Issues, Ping An IFC Tower(660M)>를 발표하였다.

마지막날 Track Session에서는 Sustainability, High Performance Tall Buildings, Free Form Structure, Smart Curtain Wall, Urban Design : Visual Analysis, Economics & Regulation, Progressive Collapse & Structural Analysis, Hybrid Structure, Urban Sustainability : Compact and Green, Structural Design, Seismic Performance, Vibration Control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50개의 Session이 발표되었다.

이날 저녁 6시부터는 CTBUH 2011 World Conference 마지막 일정으로 “Why Tall? - Green, Safety & Humanity”를 주제로 CTBUH 2011 조직위원장인 서울대 최재필 교수 사회로 Roundtable이 진행되었다.



Roundtable 토론

글을 마치며.....

CTBUH 컨퍼런스는 매년 세계의 주요도시(초고층 건물에 관심이 있는 도시 중심)를 돌며 개최되고 내년에는 상하이에서 CTBUH 2012 Congress가 개최된다. CTBUH의 모임은 건축올림픽과도 같다. 건축과 관련 모든 분야 즉, 건축설계, 구조, 설비 시공, 도시계획, 시공관리, 유지관리, 개발 등 굳이 초고층이란 주제를 떠나 건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의 건축동향과 신기술 등의 관심사를 서로 발표하고 의견 교환하는 장소이다.

지난 10년동안 대부분의 CTBUH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엔지니어들과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건설시장도 해외에 개방되고 또한 우리 건설사도 해외에서 외국기업과 많은 부분 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간의 인맥을 통하여 서로 필요한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었으나 다만 국내 설계사 및 우리 회원사의 참여가 저조하여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